

『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사도행전 —

박형대*

1. 사도행전 3:8

GNT ⁵	καὶ <u>ἐξαλλόμενος ἔστη καὶ περιεπάτει</u> καὶ εἰσῆλθεν σὺν αὐτοῖς εἰς τὸ ἱερόν περιπατῶν καὶ ἀλλόμενος καὶ αἰνῶν τὸν θεόν.
『개역개정』	<u>뛰어 서서 걸으며</u>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새번역』	<u>벌떡 일어나서 걸었다.</u>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공동개정』	<u>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u>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경충경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새한글』	<u>그가 풀쩍 뛰며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u>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경충경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1.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뛰어 서서 걸으며’로, 『새번역』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로, 『공동개정』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그가 풀쩍 뛰며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로 번역했습니다.

* London School of Theolog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hdpark@chongshin.ac.kr.

1.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의 경우 ‘뛰는 동작’을 ‘leap up’ (KJV, ESV) 혹은 ‘jump up’ (JB, NIV, NRS, NET)을 사용하여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루터성경>(Luther Bibel[이하 LB])과 <취리히성경>(Zürcher Bibel[이하 ZB])은 ‘sprang auf’로 번역했습니다. ‘일어서고 걷는 동작’의 경우, 영어 역본은 대부분 ‘stand’와 ‘walk’를 사용하면서도,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KJV는 ‘stood, and walked’로 단순히 표현했고, JB, NRS, ESV는 ‘begin’ 동사를 사용하여 ‘stood and began to walk’와 같이 번역했고, NET는 여기에 조금 변화를 주어 ‘stood and began walking around’로 번역했습니다. NIV는 ‘stand’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to his feet’를 사용했습니다. 독일어 LB는 ‘일어서고 걷는 동작’을 ‘konnte stehen und gehen’으로 번역하여, ‘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ZB는 ‘바로 서서 걸을 수 있었다(stellte sich auf die Füße und konnte gehen)’와 같이 번역했습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성전의 호라이아문(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일어나 걸으세요’라는 명령에 꺾충대며 일어서더니 걸었습니다. 세 가지 동작이 있었습니다. 첫째, ‘꺾충대는 동작’이고, 둘째, ‘일어서는 동작’이고, 셋째, ‘걷는 동작’입니다. ‘꺾충대는 동작’이 분사로 표현되기에, ‘꺾충대는 동작’과 ‘일어서는 동작’은 ‘연결되는 하나의 동작’입니다. ‘걷는 동작’은 ‘꺾충대고 일어서는 동작’에 이어지는 다른 동작입니다. 세 가지 동작을 모두 표현할지, 세 가지 동작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2) 『개역개정』은 ‘꺾충대며 일어서는 동작’을 ‘뛰어 서서’로 번역하여 두 가지 동작으로 표현했지만,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벌떡 일어나/일어나서’와 같이 하나의 동작으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폴쩍 뛰며 일어서서’와 같이 번역하여, 처음 동작을 ‘폴쩍 뛰며’와 같이 실감 나게 표현한 다음, ‘일어서서’를 덧붙였습니다. 처음 두 동작을 각각 표현하되, 연결되는 동작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KJV, NRS는 처음 동작을 분사로 표현하여, 첫 동작과 둘째 동작이 연결 동작임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JB, NET는 두 동작을 구분합니다. NIV는 두 동작을 ‘jumped to his feet’으로 표현하여, 첫 동작에 둘째 동작을 흡수하여 표현합니다. LB와 ZB는 둘째 동작을 셋째 동작으로 묶어 표현합니다.

(3) ‘일어나는 동작’은 그리스어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고, ‘걷는 동작’은 그리스어 미완료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공동개정』은 미완료과거 시제

를 ‘~하기 시작하다’로 이해하는 견해를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JB, NIV, NRS, ESV, NET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미완료과거 시제가 ‘미완료상’을 가진다는 견해를 따른다면, 굳이 ‘시작하였다’는 표현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보충 연구

(1) ‘즉각적인 치유와 연속되는 동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된 사람은 단순히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니다. 꺾충거리며 일어섰고, 이어 걸어 다녔습니니다. 독일어 성경은 ‘할 수 있었음’을 표현하엿습니니다. LB는 ‘일어서고 걷는 행동’에, ZB는 ‘걷는 행동’에 ‘가능’을 표현하엿습니니다. 그런데 ‘가능’을 그리스어로는 δύναμαι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엿습니니다. 그러므로 굳이 ‘가능’을 따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니다.

(2) 마찬가지로, ‘시작하다’가 그리스어로는 ἄρχω의 중간태로 표현하엿습니니다. 그리고 미완료과거를 ‘시작하다’로 이해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다’ 혹은 ‘begin’으로 ‘걷는 동작’을 표현할 이유는 없엿습니니다.

2. 사도행전 7:5

GNT ⁵	καὶ οὐκ ἔδωκεν αὐτῷ κληρονομίαν ἐν αὐτῇ οὐδὲ <u>βῆμα ποδός</u> καὶ ἐπηγγέλατο δοῦναι αὐτῷ εἰς κατάρχεσιν αὐτὴν καὶ τῷ σπέρματι αὐτοῦ μετ’ αὐτόν, οὐκ ὄντος αὐτῷ τέκνου.
『개역개정』	그러나 여기서 <u>발 붙일 만한 땅</u> 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새번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u>손바닥만한 땅</u> 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니다.
『공동개정』	그 때 하느님께서는 여기에서 <u>손바닥만한 땅</u> 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따름입니니다. 그 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던 때입니니다.
『새한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려줄 만한 땅은커녕 <u>한 발바닥만 한 땅</u> 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다

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또 그를 뒤이어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2.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밭 붙일 만한 땅’으로,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손바닥 만한 땅’으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한 발바닥만 한 땅’으로 번역했습니다. ‘밭, 손바닥, 발바닥’이 각각 사용되었고, ‘붙일 만한, 만한, 만 한’이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모든 외국어 역본은 모두 ‘밭’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JB는 ‘square’라는 구체적인 단위를, KJV와 NIV는 ‘밭을 둔다’라는 의미로 ‘set his foot on’을, NRS와 ESV는 ‘length’를 사용합니다. JB는 대상이 ‘땅’임을 ‘land’로, NIV와 NET는 ‘ground’로 표현합니다. NIV, NRS, ESV, NET는 ‘even’을 사용하여 강조했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영어의 ‘length’와 같은 표현인 ‘breit’를 사용했고, ZB는 ‘einmal’로 강조했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의 생전에 ‘매우 작은 땅’도 받지 못했음을 스테판은 ‘한 발 거리’로 표현합니다. ‘밭’이라는 단어와 ‘걸음’ 혹은 ‘발자국’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2) 『개역개정』은 ‘밭’이라는 단어에 ‘붙일 만한 땅’을 사용했습니다. ‘밭을 붙인다’ 하는 표현으로 정착을 표현했습니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크기가 작음을 ‘손바닥만 하다’로 표현하면서, 대상을 ‘땅’으로 명시했습니다. 『새한글』은 대상을 ‘땅’으로 지정하면서, ‘크기’가 문제임을 ‘한 발바닥만 한’으로 표현했습니다.

(3) ‘작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 문화권마다 다른 듯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코딱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 발 거리’를 ‘코딱지만 한’으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에서는 ‘발바닥’을 하나의 단위로 여기고, ‘한 발바닥만 한’으로 번역했습니다.

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보충 연구

우리 문화에서는 길이의 단위로 ‘뼘, 걸음, 자, 길’ 등을 사용합니다. ‘한 뼘, 두 뼘’으로 쉽게 길이를 계산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으로 거리를 계산합니다. ‘여섯 자 책꽂이’와 같이 가구 길이에겐 ‘자’를, ‘한 길 사람 속’ 하면서 ‘길’이라는 단위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한편, 성경에는 ‘한 발 거리’로 ‘매우 작은 단위’를 표현합니다. 예로, 신명기 2:5를 보면, ‘그들의 땅은 내가 발바닥 크기만큼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테판의 표현은 신명기의 표현과 유사합니다. ‘단위’ 문제는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발 거리’는 ‘가장 작은 단위’를 각각의 문화권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3. 사도행전 13:41

GNT ⁵	Ἴδετε, οἱ καταφρονηταί, καὶ <u>θαυμάσατε καὶ ἀφανίσθητε</u> , ὅτι ἔργον ἐργάζομαι ἐγὼ ἐν ταῖς ἡμέραις ὑμῶν, ἔργον ὃ οὐ μὴ πιστεύσητε ἐὰν τις ἐκδιηγῇται ὑμῖν.
『개역개정』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u>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u>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새번역』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u>놀라고 망하여라</u> .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공동개정』	‘너희 비웃는 자들아, <u>질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u> .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새한글』	‘보아라, 깔보는 사람들아! <u>놀라고 사라져라!</u> 너희의 시대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더라도 너희는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3.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로, 『새번역』은 ‘놀라고 망하여라’

로, 『공동개정』은 ‘질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놀라고 사라져라’로 번역했습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은 ‘wonder and perish’(KJV, NIV), ‘be amazed and perish’(JB, NRS, NET), ‘be astounded and perish’(ESV)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독일어 LB는 ‘wundert euch und werdet zunichte’로, ZB는 ‘wundert euch und geht dahin’으로 표현합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이 구절은 하박국 1:5의 인용입니다. 인용의 경우,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에 대한 고려도 작용합니다. 하박국은 ‘갈보는 자들’에게 두 가지 방향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은 ‘감정’과, ‘사라지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즉, ‘그들의 결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2) 언어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수동태 형이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be amazed’, ‘be astounded’가 쓰였습니다. 독일어에는 채귀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우리말은 감정을 표현할 때 굳이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놀라다, 기쁘다, 슬프다’와 같이 능동태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스어 θαυμάζω는 어간이 ‘파찰음’ 제타(ζ)로 끝나 ‘사역(使役)’의 의미를 갖습니다. 동사 원형 자체에 ‘사역’에 의미가 들어 있기에, 수동태를 쓰지 않아도 ‘뭔가 영향을 주었고 받았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우리말 번역은 대체로 ‘놀라다’ 동사를 사용하는데, 『공동개정』은 ‘질겁을 하다’가 사용되었습니다. ‘질겁하다’는 ‘뜻밖의 일에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라다’를 뜻합니다. ‘매우 놀라게 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강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질겁하다’는 ἐκθαυμάζω의 번역으로 적절합니다.

(3) 그리스어 ἀφανίζω의 기본 뜻은 ‘보이지 않게 되다.’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다’, ‘망하다’, ‘죽어 없어지다’ 등으로 번역하게 되면, 본래 개념과 ‘다른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멸망하다’, ‘망하다’, ‘죽다’ 등을 뜻하는 ἀπόλλυμι, ἀποθνήσκω와 같은 단어가 갖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LB의 ‘werdet zunichte’와 같이 번역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보충 연구

하박국 1:5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놀라다’를 의미하는 하나의 단어만 쓰였습니다. 히트파엘 명령형과 칼 명령형이 연달아 쓰였습니다. 이 점에서 ZB가 ‘wundert euch und geht dahin’으로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사도행전 20:10

GNT ⁵	καταβὰς δὲ ὁ Παῦλος ἐπέπεσεν αὐτῷ καὶ συμπεριλαβὼν εἶπεν, <u>Μὴ θορυβεῖσθε, ἡ γὰρ ψυχὴ αὐτοῦ ἐν αὐτῷ ἐστίν.</u>
『개역개정』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u>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u> 하고
『새번역』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u>“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u> 다” 하였다.
『공동개정』	바울로가 내려가서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사람들에게 <u>“걱정하지 마시오. 아직 살아 있소.”</u> 하고 말하였다.
『새한글』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젊은이 위로 급히 몸을 구부렸다. 그러고는 감싸 안고 말했다. <u>“수선 떨지 마세요.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u>

4.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로, 『새번역』은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로, 『공동개정』은 ‘걱정하지 마시오. 아직 살아 있소.’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수선 떨지 마세요.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로 번역했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의 번역으로 ‘Trouble not yourselves’(KJV), ‘There is no need to worry’(JB), ‘Do not be distressed’(NET), ‘Macht kein Getümmel’(LB[1984])이 있고, ‘놀라지 말라’는 의미의 번역으로는 ‘Do not be distressed’(NIV, NRS, ESV)가 있습니다. ZB는 ‘외치다’를 뜻하는 ‘Lasst das Geschrei!’로 번역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와 같은 번역은 KJV, JB, NRS, ESV,

LB(1984)에서 만날 수 있고, ‘그가 살았다’와 같은 번역은 NIV, NET, ZB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바울이 트로아스에서 주일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라 불리는 청년이 걸터앉아 있던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2) 바울의 첫 마디는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였습니다. 아마도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충격적이어서 웅성거렸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놀라지 마라’로 번역한 것(NIV, NRS, ESV)은 단어의 본래 의미를 벗어난 번역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의 번역(KJV, JB, NET, LB[1984], 『공동개정』)도 본래 의미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대체로 좋아 보입니다. ‘떠들지 말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수선 떨지 마세요’와 같은 번역입니다.

(3) 바울의 두 번째 말을 직역하면, ‘그의 목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입니다. ‘목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표현이 어색하면,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한 듯한 표현은 KJV, JB, NRS, ESV, LB(1984)에서, ‘그가 살았다’와 같은 번역은 NIV, NET, ZB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의 경우, 직역한 듯한 표현은 『개역개정』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소’,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등과 같이 한국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보충 연구

그리스어로는 ‘속마음’, ‘내면’, ‘본성’, ‘정신’, ‘목숨’, ‘사람’ 등을 의미하는 $\psi\upsilon\chi\eta$ 가 쓰였습니다. 그것도 ‘관사’ 및 ‘소유대명사’와 함께 쓰였습니다. 관사를 ‘거 있잖아’의 의미로 ‘거’를 사용하여 번역하면, ‘거 그의 목숨’이 됩니다. $\psi\upsilon\chi\eta$ 의 의미를 확장하여 적용해 보면, ‘그의 속마음’, ‘그의 내면’, ‘그의 본성’, ‘그의 정신’ 등과 같은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의 $\psi\upsilon\chi\eta$ 용례를 고려할 때, 바울의 말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로, 이 단어가 베드로 설교에서는 시편 16편의 인용에서 나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씌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에서 ‘영혼’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14:2에서는 ‘본성’의 의미로, 14:22에서는 ‘정신’

의 의미로, 20:10의 유두고 관련 표현 다음에 나오는 ‘밀레토스 설교’에서는 바울 자신의 ‘목숨’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쓰입니다(20:24). 그러므로, 유두고의 ‘목숨’과 바울의 ‘목숨’이 용례상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사도행전 27:17

GNT ⁵	ἦν ἄραιντες βοηθείαις ἐχρῶντο ὑποζωννύντες τὸ πλοῖον, φοβούμενοί τε μὴ <u>εἰς τὴν Σύρτιν</u> ἐκπέσωσιν, χαλάσαντες τὸ σκεῦος, οὕτως ἐφέροντο.
『개역개정』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u>스르디스에</u>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새번역』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u>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u>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공동개정』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배가 부서지지 않게 선체를 밧줄로 동여맸다. 그대로 가다가는 <u>리비아 해안의 모래 바닥에</u> 쳐박힐 염려가 있어서 닻을 내리고 계속 표류하였다.
『새한글』	선원들은 작은 배를 끌어 올린 뒤에 밧줄을 사용해서 배를 단단히 둘러 묶었다. <u>시르티스 모래톱에</u> 떨어져 박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향해 장비를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5.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스르디스에’로, 『새번역』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로, 『공동개정』은 ‘리비아 해안의 모래 바닥에’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시르티스 모래톱에’로 번역했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그리스어를 음역한 번역으로는 NRS, ESV, NET(‘on the Syrtis’)와 LB(‘in die Syrte’)가 있습니다. 그리스어가 의미하는 것만 표기한 것은 KJV(‘into the quicksands’)가 있습니다. ‘on the Syrtis banks’(JB)나 ‘on the sandbars of Syrtis’(NIV)와 같이 그리스어 음역과 의미하는 바를 함께 표현한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ZB는 ‘대(大) 시르티스’와 ‘소(小) 시르티스’를 구분하여 ‘대

시르티스'를 의미하는 'in die Grosse Syrte'로 번역했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단어들에는 '배' 및 '항해' 관련 전문 용어들이 많습니다. '시르티스'는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비아 북쪽 해안에 있는 모래톱'의 이름입니다. 시르티스는 '대(大) 시르티스'와 '소(小) 시르티스'로 나눌 수 있는데, '대 시르티스'는 둘레가 약 5,000스타디아(5,000 × 200미터 = 1,000,000미터)로, 천 킬로미터나 됩니다. 크레타섬 남쪽에서 배가 표류를 시작했기에, 더 가까이에 있는 '대 시르티스'에 걸릴 가능성이 큼니다.

(2) 위와 같은 지식이 없는 이들을 위해, 단순히 음역만 하지 않고 '시르티스'가 '모래톱'임을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이나 『공동개정』처럼, '리비아 근해' 혹은 '리비아 해안'에 있는 '모래톱'이나 '모랫바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은 번역의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한글』에서는 '시르티스 모래톱'이라고 표현하여, '음역'에 '간단한 설명'만을 더하여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의 '스르디스에'는 너무 간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고, 『새번역』의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와 『공동개정』의 '리비아 해안의 모래 바닥에'는 너무 자세하여 번역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독일어 ZB의 'in die Grosse Syrte'는 '시르티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레테 섬 가까이에 있는 시르티스는 '대 시르티스'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기에, 기본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JB('on the Syrtis banks')나 NIV('on the sandbars of Syrtis')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5.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보충 연구

사도행전 27장에는 '시르티스' 외에도, '금식 기간'(27:9), '유라굴로'(27:14), '달려 있는 작은 배'(27:16)처럼 기본 지식이 필요한 표현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금식 기간'이 바울이 항해하던 당시로는 59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양력 3월은 되어야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식 기간이 지나면, 긴 항해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는 '동북동풍'을 표현하는 라틴어입니다. 유라굴로가 동북동풍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칼로이리메네스(아름다운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리비아 북쪽 해안에 있는 시르티스에 걸릴 거라는 선원들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북

쪽으로 22.5도 이동하면 ‘동북동쪽’이 되기 때문입니다. ‘돛이 없는’ 팔려 있는 작은 배가 중요한 이유는 모래톱에 걸릴 경우 작은 배를 통해서만 살아날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제어>(Keywords)

사도행전 3:8, 사도행전 7:5, 사도행전 13:41, 사도행전 20:10, 사도행전 27:17.
Acts 3:8, Acts 7:5, Acts 13:41, Acts 20:10, Acts 27:17.

(투고 일자: 2024년 9월 2일, 심사 일자: 2024년 9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12월 30일)